

수영 이동현 첫 4관왕

<광주 풍암고>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

전남 인성학교 'e스포츠' 혼성' 금



광주는 이동현의 4관 왕에 힘입어 수영에서 무려 7개의 '금메달'을 채는 선전을 펼쳤다.

또한 보치아 경기에서는 노영진이 융상 개인전 BCI, 육상에서는 이기쁨이 여자 200m DB에서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은 인성학교 강준혁·김용호·유경태가 e스포츠 혼성 마우마우 OPEN에서 금메달 1개를 추가했다.

배구경기에서는 소림학교가 드라마 같은 역전극을 펼치며 우승의 기쁨을 누렸고 씨름에서 임병석(함평영화학교)과 보치아에서 구영인(목포하당중)이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광주수영대표 이동현(풍암고·S14·시즌)이 대회 첫 4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14일 자유형 50m에서 우승한 이동현은 15일 목포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3회 전국학생장애인체육대회 3일째 수영경기 접영 50m·혼성계영 4x50m·혼성 혼계영 4x50m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이번 대회 최초의 4관왕의 주인공이 되었다. 광주는 이날 금 9개, 은 11개, 동 12개를 추가해 총 금 16개, 은 18개, 동 16개를 획득했다. 전남은 금 4개, 은 4개, 동 2개를 더해 총 금 9개, 은 11개, 동 11개를 기록 중이다.



바르셀로나 '스페인 국왕컵' 우승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FC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14일(한국시간) 스페인 국왕컵 결승에서 아틀레티코 빌바오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기는 없다" 투혼의 강스파이크

영암 소림학교 배구팀, 열세 딛고 서울에 역전 우승

14일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배구경기가 열린 효천고체육관은 전남 청각장애 선수들의 극적인 역전드라마가 펼쳐졌다.

전남 영암소림학교와 서울연합팀의 중·고 통합 배구경기 결승전, 서울팀은 모두 고교생들만 반면 전남은 고교생은 2명 뿐이고 4명이 중학생이었다.

한눈에 봄 전남의 열세가 확실했다. 예상대로 초반부터 고전을 면치 못하는 전남은 3세트 들어 유일한 공격수인 인성 선수들은 체력이 떨어지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스코어 7-15까지 벌어지면서 추격의 지마자 끊이려던 순간 기적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전남선수들은 서로를 격려하면서 격려하기 시작했고 벤치에 있던 박준성 감독은 목이 터져라 퍼팅을 외쳤다.

비록 박 감독의 응원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들이지만 끝까지 해보자는 강한 의지가 서로에게 통한 듯 대반전이 시작됐다.

결국 그립진 추격전을 펼친 전남이 서울을 따라잡고 드스까지 가는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냈다. 24-24, 25-25, 26-26 세번의 드스 끝에 결국 28-26으로 대역전승을 거두는 놀라운 투혼을 발휘했다.

그 순간 선수·감독은 물론 관중들마저도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들키지 못하는 어린 선수들에게 관중들은 한동안 뜨거운 박수 갈채를 보냈다.

그동안 일요일도 쉬지 않고 힘든 훈련을 소화해 낸 선수들에게 이날의 승리는 더욱 감동적이고 값진 것이었다.

이날 우승의 주역 문영민(중2)·임주성(중1)·황진하(중2)·김정수(중3)·심재봉(고1)·이인성(고3)은 한참을 열심히 기쁨을 나누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박지성, 맨유 더블우승 주역 되나

<정규리그·챔스리그>

맨유, 위건에 역전승...정규리그 3연패 승점 1점 남아

주말 아스널전 '한 방' 땐 챔스리그 결승무대 밝을 듯

'산소 탱크' 박지성이(28·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하 맨유)이 종착역을 앞에 둔 2008-2009 시즌의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을까.

박지성이 2년 연속 '더블'에 도전하는 맨유의 주축으로 활약하며 남은 시즌을 기분 좋게 마무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블'은 정규리그, 유럽축구연맹 챔피언리그 등 2개의 우승컵을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맨유는 14일(이하 한국시간) 위건 애슬레틱과 포리미어리그 원정경기에서 짜릿한 2-1 역전승을 거두면서 세 시즌 연속 정규리그 우승 초읽기에 들어갔다.

시즌 27승 5무 4패(승점 86)로 2위 리버풀(승점 80)을 승점 6점차로 따돌려 남은 두 경기에서 승점 1점만 보태도 우승을 확정한다.

맨유는 16일 '빅4' 애스널과 홈경기에서 1, 2차전 모두

어 24일 헬시티와 원정경기로 최종전을 치른다. 올드 트래퍼드에서 펼쳐질 아스널과 경기가 정규리그 3연패를 확정하는 'D-데이'가 될 공산이 크다.

박지성이 주말 아스널과 일전에 선발로 출격할 가능성도 큰 편이다. 박지성은 이날 위건과 경기 후반 43분 디미트로 베르바토프와 교체 출전해 6분여만 뛰었기 때문에 체력을 충분히 비축했다.

'꿈의 무대'인 챔피언리그에서도 박지성이 아시아인 최초로 결승에 선발로 뛰는 인정표를 세울지가 관심거리다.

맨유는 오는 28일 이탈리아 로마의 올림피코 스타디움에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강호' FC 바르셀로나와 단판 승부로 유럽 최강자를 가린다.

박지성은 지난해 챔피언리그 4강 상대였던 바르셀로나와 경기에서 1, 2차전 모두



美 전춘 박태환 "1,500m 내 기록 깔 것"

선발로 나서 풀타임으로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결승 진출에 앞장섰다.

박지성이 맨유의 정규리그 2연패 동시 달성을 앞장서고 기분 좋게 한국 대표팀의 '캡틴'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6차전(6월7일) 원정에 합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UAE전 앞둔 허정무號

내달 3일 오만과 '모의고사'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 6차전을 앞두고 오만과 '모의고사'를 치른다.

대한축구협회는 14일 "축구대표팀이 6월 3일(한국시간) 오전 0시30분 UAE 두바이에서 국제축구연맹 랭킹 81위인 오만과 평가전을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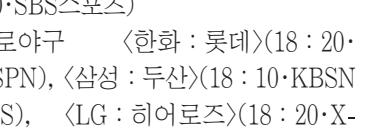
15일(금)

▲매경 오픈 골프 2R (14 : 10·KBS2)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 결승(10 : 50·SBS스포츠)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 히로시마> (17 : 50·SBS스포츠)

▲프로야구 <한화 : 롯데> (18 : 20·MBCESPN), <삼성 : 두산> (18 : 10·KBSN SPORTS), <LG : 하이로즈> (18 : 20·Xports), <KIA : SK> (21 : 00·SBS스포츠)



14일 삼성전자 육상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남자마라톤 세계랭킹 15걸은 2시간4분24초, 2시간5분24초, 2시간6분24초 7명으로 유례없는 스피드 마라톤의 시대를 열었다. /연합뉴스

마라톤 지영준 세계랭킹 30위

'포스트 이봉주 체제'의 선두주자로 재기에 성공한 지영준(28·경찰대)이 올해 상반기 세계마라톤 랭킹 30위에 올랐다.

지영준은 지난달 12일 대구국제마라톤에서 2시간8분30초를 뛰어 비아프리카 선수로는 가장 좋은 기록을 냈다.

14일 삼성전자 육상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남자마라톤 세계랭킹 15걸은 2시간4분24초, 2시간5분24초, 2시간6분24초 7명으로 유례없는 스피드 마라톤의 시대를 열었다. /연합뉴스

마라톤 지영준 세계랭킹 30위

'포스트 이봉주 체제'의 선두주자로 재기에 성공한 지영준(28·경찰대)이 올해 상반기 세계마라톤 랭킹 30위에 올랐다.

지영준은 지난달 12일 대구국제마라톤에서 2시간8분30초를 뛰어 비아프리카 선수로는 가장 좋은 기록을 냈다.

14일 삼성전자 육상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남자마라톤 세계랭킹 15걸은 2시간4분24초, 2시간5분24초, 2시간6분24초 7명으로 유례없는 스피드 마라톤의 시대를 열었다. /연합뉴스

마라톤 지영준 세계랭킹 30위

'포스트 이봉주 체제'의 선두주자로 재기에 성공한 지영준(28·경찰대)이 올해 상반기 세계마라톤 랭킹 30위에 올랐다.

지영준은 지난달 12일 대구국제마라톤에서 2시간8분30초를 뛰어 비아프리카 선수로는 가장 좋은 기록을 냈다.

14일 삼성전자 육상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남자마라톤 세계랭킹 15걸은 2시간4분24초, 2시간5분24초, 2시간6분24초 7명으로 유례없는 스피드 마라톤의 시대를 열었다. /연합뉴스

마라톤 지영준 세계랭킹 30위

'포스트 이봉주 체제'의 선두주자로 재기에 성공한 지영준(28·경찰대)이 올해 상반기 세계마라톤 랭킹 30위에 올랐다.

지영준은 지난달 12일 대구국제마라톤에서 2시간8분30초를 뛰어 비아프리카 선수로는 가장 좋은 기록을 냈다.

14일 삼성전자 육상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남자마라톤 세계랭킹 15걸은 2시간4분24초, 2시간5분24초, 2시간6분24초 7명으로 유례없는 스피드 마라톤의 시대를 열었다. /연합뉴스

마라톤 지영준 세계랭킹 30위

'포스트 이봉주 체제'의 선두주자로 재기에 성공한 지영준(28·경찰대)이 올해 상반기 세계마라톤 랭킹 30위에 올랐다.

지영준은 지난달 12일 대구국제마라톤에서 2시간8분30초를 뛰어 비아프리카 선수로는 가장 좋은 기록을 냈다.

14일 삼성전자 육상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남자마라톤 세계랭킹 15걸은 2시간4분24초, 2시간5분24초, 2시간6분24초 7명으로 유례없는 스피드 마라톤의 시대를 열었다. /연합뉴스

마라톤 지영준 세계랭킹 30위

'포스트 이봉주 체제'의 선두주자로 재기에 성공한 지영준(28·경찰대)이 올해 상반기 세계마라톤 랭킹 30위에 올랐다.

지영준은 지난달 12일 대구국제마라톤에서 2시간8분30초를 뛰어 비아프리카 선수로는 가장 좋은 기록을 냈다.

14일 삼성전자 육상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남자마라톤 세계랭킹 15걸은 2시간4분24초, 2시간5분24초, 2시간6분24초 7명으로 유례없는 스피드 마라톤의 시대를 열었다. /연합뉴스

마라톤 지영준 세계랭킹 30위

'포스트 이봉주 체제'의 선두주자로 재기에 성공한 지영준(28·경찰대)이 올해 상반기 세계마라톤 랭킹 30위에 올랐다.

지영준은 지난달 12일 대구국제마라톤에서 2시간8분30초를 뛰어 비아프리카 선수로는 가장 좋은 기록을 냈다.

14일 삼성전자 육상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남자마라톤 세계랭킹 15걸은 2시간4분24초, 2시간5분24초, 2시간6분24초 7명으로 유례없는 스피드 마라톤의 시대를 열었다. /연합뉴스

마라톤 지영준 세계랭킹 30위

'포스트 이봉주 체제'의 선두주자로 재기에 성공한 지영준(28·경찰대)이 올해 상반기 세계마라톤 랭킹 30위에 올랐다.

지영준은 지난달 12일 대구국제마라톤에서 2시간8분30초를 뛰어 비아프리카 선수로는 가장 좋은 기록을 냈다.

14일 삼성전자 육상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남자마라톤 세계랭킹 15걸은 2시간4분24초, 2시간5분24초, 2시간6분24초 7명으로 유례없는 스피드 마라톤의 시대를 열었다. /연합뉴스

마라톤 지영준 세계랭킹 30위

'포스트 이봉주 체제'의 선두주자로 재기에 성공한 지영준(28·경찰대)이 올해 상반기 세계마라톤 랭킹 30위에 올랐다.

지영준은 지난달 12일 대구국제마라톤에서 2시간8분30초를 뛰어 비아프리카 선수로는 가장 좋은 기록을 냈다.

14일 삼성전자 육상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남자마라톤 세계랭킹 15걸은 2시간4분24초, 2시간5분24초, 2시간6분24초 7명으로 유례없는 스피드 마라톤의 시대를 열었다. /연합뉴스

마라톤 지영준 세계랭킹 30위